

지역건설사 전국 분양시장 승승장구

우미·중흥건설 등 가는 곳마다 대박

철저한 시장분석...시공 순위도 경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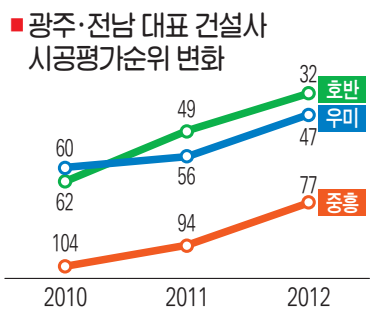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광주·전남지역 건설사들이 수도권·세종시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표 건설사인 우미건설과 중흥건설·호반건설 등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들 건설사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분양시장에서 고품질 아파트 건설과 합리적인 분양가, 탁월한 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분양하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특새주택시장과 건설부분 외 사업 다각화를 추진,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분양마다 승승장구=이들 건설사의 공통점은 전국 곳곳에서 ‘분양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미건설의 경우 지난해 공급한 양

산 물금지구를 비롯해 대전 도안신도시(1691가구), 전북혁신도시(1142가구), 목포 옥암지구(500가구)에서 계약률 100%를 기록했다. 올해 초 공급한 구미 옥계지구(720가구)도 10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청주 금천동(319가구)과 원주 무실2지구(654가구) 등도 계약이 순조롭다.

이준식 우미건설 홍보팀장은 “안정적인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분양에 나선데다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최근 2년간 공급한 모든 아파트가 분양에 성공했다”며 “특히 지난해 특새주택상품이라 할 수 있는 소형주택시장에 ‘쁘띠리’를 내놓으면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미건설은 수도권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한때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우려했던 김포한강신도시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도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등 입주여건이 좋아지면서 중흥건설의 경우 입주개시 보름만에 30%에 육박하는 입주를 보이고 있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다.

중흥건설은 최근 공급한 광주 첨단2지구에서 최고 64대 1의 경쟁률로 분양에 성공했다. 또 순천 신대지구와 세종시에서의 좋은 분양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해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만 1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대전 도안신도시를 비롯해 광고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등에서 6500여 가구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도 동탄2신도시, 세종시, 전북혁신도시 등에서 9000여 가구를 공급 중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경중=분양에 성공한 이들 건설사는 건설시공능력평가 순위도 경중 뛰어올랐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올해 건설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호반건설, 우미건설, 중흥건설은 지난해보다 적게는 9계단에서 많게는 17계단까지 상승했다.

지역 건설사 부동의 ‘빅3’였던 남양건설과 금광기업을 제치고 호반건설과 우미건설이 등극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 62위에서 올해 32위로 2년 사이에 무려 30계단 수직 상승했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56위에서 올해 47위로 9계단 뛰었다. 우미건설은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사업까지 안정적으로 진출하며 전체 수주잔고액이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94위에서 77위로 17계단 급등했다.

업계는 이들 건설사가 불황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요인으로 철저한 시장분석능력을 꼽고 있다.

수도권의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던 지방 공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공급이 끊겼던 중형 지방도시와 혁신도시 등 우수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한 것이다. 또 우수한 상품 구성도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특히, 우미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주택품질 소비자인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주택에 살아본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선정하는 상으로, 3년 연속 선정된 업체는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우미건설 등 3개사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술 수출 희비

막걸리 22% 줄고 소주 23% 늘어

최근 3년간 급증세를 보이던 막걸리 수출이 올해 들어 크게 위축됐다. 반면에 소주 수출액은 23%나 늘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주요 주류 수출입 동향’을 보면 올해 1~8월 막걸리 수출액은 2천 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감소했다. 수출물량도 2천200만ℓ로 24.1% 줄었다.

수출액 기준으로 2009년 600만달러에서 2010년 1900만달러, 작년 5300만달러로 최근 3년간 8.8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2009년 4200만달러, 2010년 4700만달러, 2011년 6500만달러로 꾸준해 증가하던 맥주 수출액은 올해 4600만달러로 4% 감소해 주춤했다.

수출물량도 5900만ℓ로 4.9% 줄었다.

이에 반해 소주는 올해 8300만달러 어치가 수출돼 증가율이 23.

1%나 됐다. 2010년 연간 수출액이 1억23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1400만달러로 7.1%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출물량은 5100만ℓ로 22.7% 신장했다.

수입 술은 사케와 맥주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특히 사케는 990만달러어치가 들어와 수출액 증가율이 11.2%였지만 수입물량은 330만ℓ로 106.2%나 급증했다.

맥주 수입액은 4800만달러로 28.9%, 수입량은 4800만ℓ로 23% 늘었다. 특히 일본산 맥주의 비중이 작년 19.5%에서 26.4%나 증가했다. 와인 수입액은 9300만달러로 6%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위스키 수입액은 1억3600만달러로 5.4% 감소해 값이 비싸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한 기피풍조를 반영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서구

취업 박람회

내일 구청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는 25일 오후 2시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 보육, 조리 등 15곳의 구인업체가 참여하며, 구직자와 1대 1 현장면접을 하게 된다.

서구는 맞춤형 구직상담과 이력서 작성 그리고 취업 컨설팅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건강검진과 면접사진 촬영, 음악 공연 등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구직을 원하는 주민은 당일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 현장에서 면접을 보면 된다. 문의 062-360-716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파는 물리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3일 오후 추석 제수용품 마련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인해 남광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대목은 옛날 말”이라며 “명절 대목의 들뜬 분위기도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한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국토해양부 규제 완화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지자체별로 최장 40년까지 규정한 재건축 연한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21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당초 이노근 의원이 현재 지자체 조례로 최장 40년까지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단축하자고 발의한 도정법 개정

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로 정한 재건축 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계 주공·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처럼 그동안 재건축 연한이라는 굴레에 묶여 재건축을 못하고 낡은 시설을 감수하면서 버텨온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다만 중대한 기능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과급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희망플러스, 새희망플러스대출로 바뀐 이후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비중 급감

희망플러스대출이 새희망플러스대출로 바뀐 이후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비중이 줄어들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새희망플러스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희망플러스 판매기간인 2009년 3월~2010년 10월(20개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고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액은 1조1412억원이었다. 전체 대출액 2조6713억원의 43%다.

새희망플러스가 출시되고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0년 11월~2012년 6월(20개월) 새희망플러스 실적 가운데 저신용·저소득층에 지원된 금액은 희망플러스보다 7077억원 줄어든 4335억원으로, 전체 실적 2조5165억원의 17%다.

이 기간 두 상품의 전체 대출실적은 비슷했지만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 비중은 절반 이하가 됐다.

연간 소득액별로는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대출액이 전체의 80%(2조 1247억원)에서 48%(1조2181억원)로 줄었다.

신용등급별로는 저신용층 비중이 55%(1조4719억원)에서 36%(9089억원)로 감소했다.

저신용층 지원 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100%에서 각각 33%, 39%로 급감했다. 신한은행도 83%에서 36%로 축소하는 등 16개 은행 중 13개 은행이 저신용층 대출 비중을 낮췄다.

그러나 새희망플러스대출 대상이 희망플러스보다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위험도가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12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4	5	9	13	26	27	1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940,094,452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9,170,603
3	5개 숫자 일치						1,210,982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가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 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만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본 무경험,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 고객의 회비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9월 22일 토요일 OPEN
충장로 1가 입구 안산빌딩 8F

6기버 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이팅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점심 ₩14,900
-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 ₩18,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교생 ₩9,900
- 영업시간 : AM 11시~PM 11시

예약문의 226-0003

■ 주차안내 :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안산 1주차장)
● 승합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